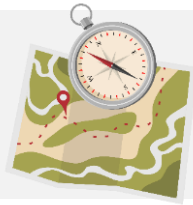


2023 EMERiCs-AIF 신흥지역 체험기 공모전 당선작 인도남아시아 권역



느릿느릿 흘러가는 토두섬 -몰디브 주민의 삶을 따라가는 시간-

양건우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하자는 어느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다. 나는 이 영화를 무척 좋아해 몇 번이고 돌려 봤지만 정작 몰디브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다. 그토록 맑고 아름답다는 지상낙원이 지구 어느 쪽에 붙어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나와는 상관없는 호사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나는 인도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비로소 몰디브의 위치를 알게 되었다. 지도를 가로지르는 새파란 인도양 위에 아주 작은 티끌처럼

표시되는 섬나라 몰디브 공화국은 인도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웃 나라였다. 욕심조차 낼 수 없었던 머나먼 몰디브가 하루아침에 가장 가깝고 적당한 여행지로 변신한 것이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다.

기회를 엿보고 엿보다가 드디어 몰디브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주어진 시간은 5박 6일.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나는 ‘진짜 몰디브’를 만나고 싶었다. 고급 리조트와 방갈로, 산해진미를 모아 놓은 뷔페가 맞이하는 몰디브가 아니라 아담하고 소박한 가옥, 화려하진 않아도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는 몰디브를 만나고 싶었다. 거대한 관광 산업의 톱니바퀴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 현지 주민과 그들의 평범한 하루를 따라가기 위해 나는 어느 외진 주민 섬에 숙소를 잡았다. 그곳의 이름은 토두 아일랜드(Thoddoo Island)였다.

설레는 마음에 며칠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고 드디어 토두섬으로 출발하는 날이 왔다. 뭍바이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말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에 딱 두 번 운행하는 스피드 보트를 타기 위해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말레에서 토두섬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바로 이 스피드 보트다. 일인당 35달러를 지불하고 탑승하면 유니폼을 입은 선장이 포세이돈처럼 거센 파도를 뚫고 망망대해를 가로지른다.



1시간 동안 사정없이 흔들리는 파도타기를 견뎌내고 마침내 하얀 보트가 토두섬 선착장에 도착했다. 함께 내린 관광객은 채 30명도 되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동질감을 느꼈다. 이 작고 은밀한 섬까지 용케 찾아왔다는 안도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너도나도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듯 각자의 숙소로 뿔뿔이 흩어졌다.

예약한 숙소는 말이 호텔이지 게스트하우스나 에어비엔비에 가까웠다. 개인 주택을 개조한 작고 아담한 공간이 마치 푸른 정글처럼 나무와 풀로 가득했다. 빼격대는 나무 문을 살포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바닥과 벽을 기어다니는 개미와 거미, 천장이 뚫려 하늘과 구름을 그대로 보여주는 화장실, 사방에서 앵앵대는 모기 울음까지 내가 그리던 현지의 모습 그대로다. 와이파이는커녕 한 번 고장나



면 꿈쩍 없이 다음날까지 버텨야 하는 전등불과 모래 한 움큼에 바로 막혀버리는 배수구. 모든 면에서 편리함을 재촉하는 현대문명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지만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사람 냄새가 느껴져 썩 나쁘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토두섬의 거친 모습이 언제나 날 선 칼처럼 서늘했던 나의 마음을 온화하고 평화롭게 토닥이는 기분이었다.

서둘러 짐을 내려놓고 해가 지기 전에 동네부터 한 바퀴 돌았다. 선착장과 주유소, 우체국과 경찰서, 모스크와 발전소, 학교와 유치원, 슈퍼마켓과 이발소, 병원과 약국, 운동장과 놀이터. 없는 것이 없는 참으로 놀랍고도 짝직한 마을이었다. 수도 말레에서 한 시간이나 배를 타고 들어온 외딴섬에 이렇게

완벽한 세계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이 마치 동화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신이 나서 이리저리 쏘다녔더니 어느덧 배가 출출해졌다. 나는 숙소에서 제일 가까운 식당에 들어가 첫 저녁을 먹었다. 토두섬에서 가장 많이 먹은 음식은 참치볶음밥이다. 다른 리조트섬에 비하면 물가가 저렴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식당만큼은 관광객 대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음식값이 만만치 않았다. 제일 저렴하면서도 푸짐한 메뉴는 어느 집에 들어가도 8천 원짜리 참치볶음밥이었다. 나는 접시에 수북이 담아주는 볶음밥과 샐러드로 5일 내내 영양분을 보충했다. 계속 볶음밥만 먹기 지겨울 때는 두어 번쯤 조금 더 값이 나가는 피시 스테이크도



도전했다. 하지만 그 피시 역시 결국은 참치였고 스테이크 텅어리가 영락없는 동원참치라 박장대소가 터졌다. 물디브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참치 왕국이라더니 과연 토두섬 밥상에 올라오는 물고기도 무조건 참치로 시작한다. 그뿐 아니라 어느 슈퍼마켓에 들어가도 선반 한쪽에 말린 참치가 쌓여 있다. 여기도 참치, 저기도 참치, 토두섬 주민에게 참치가 얼마나 중요한 단백질원인지 이보다 맛있게 배울 수는 없었다.

토두섬에서는 하루하루가 동화 속 주인공이었다. 아침에 일어나 현지에서 기른 파파야와 몽키바나나를 먹고 영금영금 수영복과 돛자리를 챙겨 퍼블릭 비치로 걸어갔다. 하루 종일 물고기와 바다거북 옆에서 헤엄치고 나무 그네에 앉아 노을을 감상했다.



배꼽시계가 울어대면 주섬주섬 집에 돌아가 물기가득한 수영복을 내려놓고 다시 영금영금 식당으로 향한다.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어느덧 깜깜한 밤도 내려앉고 박쥐들의 날갯짓 속에서 하늘을 수놓은 별 무리에 빠져들었다.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해서 여행이라기보다는 요양에 가까운 나날이었다.



섬을 떠나기 하루 전날 나는 섬 전체를 구석구석 관찰하기 위해 자전거를 빌렸다. 호텔과 식당이 몰려 있는 구역을 벗어나 섬 반대쪽으로 페달을 밟았다. 좁은 골목을 사이에 두고 얼굴을 맞댄 작은 대문이 이어지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녀들의 검은 차도르 자락이 휘날렸다. 소년은 헤진 공을 차며 키득거리고 낙엽을 쓰는 할머니와 아낙네의 표정에는 경계심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코란을 읊는 저녁

기도가 온 섬을 감싸 안으면 가게와 식당은 불을 켜 둔 채 문을 닫고 하나둘 모스크로 모여든다. 이곳에서는 하루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면 비로소 주민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청춘들의 기합소리 우렁차고 공사장에서는 우당탕탕 철근 소리가 굴러간다. 관광객만이 드문드문 지나가는 낮이 저물어야 현지인의 밤이 떠오르는 것이다. 이런 모습 또한 토두섬만이 보여줄 수 있는 생생한 재미였다.

이곳에서 보낸 옛새 동안 나는 끊임없이 생각했다. 참다운 여행이란 무엇일까. 편리한 호텔 대신 자연을 닮은 숙소, 질주하는 자동차 대신 천천히 나아가는 자전거, 현란한 만찬 대신 건강한 밥 한 그릇. 이 작은 섬은 내게 새로운 여행, 새로운 태도, 새로운 삶을 보여줬다. 느릿느릿 자신의 속도로 흘러가는

토두섬에서 함께 호흡하며 일상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여행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본 원고는 EMERICs와 AIF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후원하는 신흥국 체험 수기 공모전 수상작입니다. 저작권 정책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에 따르며, 본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변경·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출처 표기 △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 본 원고에 대한 글, 그림,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 AIF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삽입된 이미지는 모두 저자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저자의 동의 없이 사용을 금합니다.

